

『독립유공자 공훈록』(국가보훈처) 해제 및 부산지역 출신 독립유공자 수록현황

한종민*

| 목 차 |

- I. 머리말
- II. 공훈록의 체제와 구성
- III. 부산지역 출신 독립유공자의 수록현황
- IV. 맺음말

I. 머리말

2019년은 기미년 3.1운동이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기념적인 해이다. 연이어 개최되고 있는 3.1운동 관련 학술행사와 독립운동·독립운동가 관련 신문기사들은 3.1운동이 가지는 위상과 의미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실제로도 1919년 봄, 한반도에서는 침략자인 일본제국주의 세력과 이에 가담한 일부 친일세력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이가 한 목소리로 독립을 외쳤다. 비록 이러한 외침이 즉각적인 해방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헌병경찰제도를 기반으로 한 일제의

* 부산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 proworldcup@naver.com

무단통치를 마감시켰고 이때의 거족적인 저항의 경험과 기억은 이후에 전개되는 민족해방운동의 정신적 토대로서 역할하였다. 1945년 8월 15일의 해방도 3.1운동의 정신과 실천적 경험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던 꾸준한 국내외 독립운동의 결과이자 식민지 조선의 대중들이 지녔던 독립에 대한 염원이 파시즘 진영 대 반파시즘 진영의 대립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국제정세 속에서 일제 군국주의의 패망으로 실현된 것이었다.

본고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독립유공자 공훈록』(이하 공훈록)은 이처럼 일제로부터 독립된 민족국가를 세우고자 여러 방면에서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했던 독립유공자들의 기본정보와 공적을 수록하고 있는 자료이다. 국가보훈처에서 간행한 공훈록은 1986년 1권의 간행을 시작으로 현재 23권(2017년)까지 간행되었고 독립유공자의 추가 서훈·포상과 더불어 계속 간행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공훈록에 수록된 인물별 공적 내용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공훈전자자료관에서도 제공되고 있다.¹⁾ 이러한 공훈록은 일제하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인물들의 기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 자료로서 유용성과 편의성을 두루 갖추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공훈록 자체에 관한 해제나 이를 주된 자료로서 활용한 연구는 많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3.1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부산지역의 독립운동 연구와 독립운동가 연구가 활발해지기를 기원하며, 공훈록의 구성체제를 소개하고 공훈록에 수록된 부산지역 출신 독립유공자의 현황을 정리하고자 한다. 한편 국가보훈처에서는 공훈록 외에 『대한민국 독립유공인물록』(이하 인물록)도 4차례(1994년, 1997년, 2002년, 2008년) 간행하였는데, 본고에서는 인물록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공훈록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하고자 한다.²⁾

1)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 <http://e-gonghun.mpva.go.kr>(검색일: 2018. 2. 18.).

2) 인물록에는 독립유공자의 성명, 서훈(훈격, 연도), 운동계열, 출신지, 공훈록 수록 위치가 수록되어 있다. 해당 유공자의 공적내용에 대한 설명은 수록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공훈록의 색인으로 활용가능하다. 또한 인물록의 경우 외국인 독립 유공자 또한 수록

II. 공훈록의 체제와 구성

공훈록은 민족해방운동에 참여한 인물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확실한 공적 기록의 발간”을 목적으로 1980년대 말 국가보훈처에서 간행하기 시작한 자료이다.³⁾ 원호처(국가보훈처)의 주도 하에 1984년 당시 생존 애국지사 및 역사전공 전임교수를 중심으로 ‘독립유공자공훈록 편찬위원회’가 구성되었고,⁴⁾ 1986년 애국계몽운동과 의병전쟁에 참여한 유공자를 수록한 1권이 발행되었다. 발행을 시작할 당시 공훈록은 독립운동을 9개 계열로 분류하고 서훈 받은 3,957명의 독립유공자를 총 7권에 수록하여 1988년까지 발간을 완료하는 것으로 기획되었다. 이러한 기획은 간행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조정이 이루어졌으며,⁵⁾ 간행기간 중에 추가로 서훈된 인물을 포함하여 1990년 8권까지 간행되었다. 그 후에 간행된 9권부터는 추가로 서훈된 독립유공자들을 수록하는 형태로 간행되어 오고 있으며, 현재(2019년 1월) 2016년에 서훈이 이루어진 독립유공자의 공훈록으로 편성된 23권까지 간행된 상태이다. 2017·2018년의 서훈 유공자를 수록한 24권은 2019년 하반기에 간행이 예정되어 있다.

현재까지 간행된 공훈록 전체의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①총론, ②참여자 명단(및 독립운동 단체일람표),⁶⁾ ③개별 공훈록, ④독립운동 관련 문헌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는 공훈록과 구별되는 특징이다.

- 3) 『발간사』, 『독립유공자 공훈록(1)』, 국가보훈처, 1986.
- 4) 위원회가 구성될 당시 국가보훈처의 부처명은 원호처였다. 원호처는 1985년 국가보훈처로 부처명이 변경되었다.
- 5) 기존에 의열투쟁편 및 임시정부 광복군편으로 계획되었던 제5권을 임시정부와 광복군편으로 단독편성하면서 기존에 7권이었던 분책계획을 8권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 6)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참여자 명단이 수록되어 있는 1~8권 중 일부 권호(4권-독립군과 만주지역의 활동, 5권-임시정부와 광복군)에 관련 독립운동 단체 일람표가 수록되었다.

<표 1> 공훈록의 최초 간행 기획과 실제 구성

1권 간행 당시 기획되었던 권호구성	실제 간행 권호구성
제1권-애국계몽운동편, 의병전쟁편 제2권-3.1운동편(상) 제3권-3.1운동편(하) 제4권-독립군과 만주지역의 활동편 제5권-의열투쟁편, 임시정부와 광복군편 제6권-정치·사회운동편 제7권-학생운동편·문화운동편	제1권-애국계몽운동편, 의병전쟁편 제2권-3.1독립운동편(상) 제3권-3.1독립운동편(하) 제4권-독립군과 만주·노령지역의 독립운동편 제5권-임시정부와 광복군편 제6권-학생운동편·문화운동편 제7권-국내독립운동편 제8권-의열투쟁편, 1986~89년 추가포상자

다만 독립운동의 계열별로 공훈록을 수록한 1권~8권과 연도별로 추가 서훈된 유공자의 공훈록을 담고 있는 9권 이후는 편집체제에 차이가 있다. 1권~8권은 독립운동 계열별 ①총론, ②참여자 명단(및 독립운동 단체일람표), ③개별 공훈록으로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그 중 8권은 공훈록 간행이 진행중이던 1986년~1989년 사이의 추가 포상자를 후반부에 따로 수록하였다. 반면 9권 이후로는 독립운동부문별 편성 대신 연도별로 편성하여 8권의 후반부와 같이 해당 연도에 서훈된 유공자의 ③개별 공훈록과 색인으로 구성하였으며, 특정 권호에는 ④독립운동 관련 문헌자료를 함께 수록하기도 하였다.

공훈록을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①총론의 경우 애국계몽운동, 의병전쟁, 3.1운동, 독립군 및 만주·노령지역의 독립운동, 임시정부와 광복군, 학생운동, 문화운동, 국내독립운동, 의열투쟁이라는 9개의 독립운동 부문의 개설적인 내용과 전체적인 흐름을 서술하고 있다. 각 운동 부문별 총론은 집필위원회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집필위원들은 관련 분야를 전공한 대학 전임 교수들이 맡

있다. 부문별 집필위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애국계몽운동편-신용하
의병전쟁편-박성수
3.1운동편-김진봉
독립군과 만주지역 활동편-박영석
임시정부와 광복군편-이현희
학생운동편-조동걸
문화운동편-신용하
국내독립운동편-조동걸
의열투쟁편-윤병석

운동부문별 총론과 함께 수록되어 있는 ②참여자 명단은 서훈을 받은 독립유공자는 물론이고, 이외에 공훈록 집필에 근거가 되는 기록에서 해당 부문의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인물까지 모두 망라하여 목록화한 것이다. 명단은 간략한 인적사항과 원전 자료명을 수록하고 있으며 성명 순으로 이명이나 호, 독립운동 참여 당시의 연령, 출신지 또는 활동지, 근거문헌(舉證文獻), 활동 단체나 독립운동 내용, 서훈연도 등의 비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별히 독립군 및 만주·노령 지역의 독립운동편(제4권)과 임시정부와 광복군편(제5권)의 참여자 명단에는 따로 소속단체란이 추가되어 있는데, 해당 편에서는 참여자 명단에 앞서 독립운동 단체 일람표도 함께 수록하였다. 이 독립운동 단체 일람표에는 활동연대, 중심지역, 주요인물, 조직, 기본적인 활동내용 등의 내용과 해당 단체가 언급되는 자료의 출처가 기록되어 있다.

<그림 1> 개별 공훈록의 게재 형식(장건상 항목의 일부)

독립유공자공훈록

HOME | 책자제작 | 문의 | **독립유공자공훈록**

공훈록

1) 유공자정보

공훈번호	52084		
성명	장건상	본명	장건상
이름	장건상	성명	장
생몰일	1882.12.19	사망연월일	1974.05.14
주소	부산광역시 동진동 311		
주요 인물	주요 인물		



2) 공적명령

훈장명칭	임시정부	수훈연월	독립유공자공훈록 제1회(1992년 발간)
훈장번호	1986	훈격	대훈장장
공훈록			

부산출신 사형인이다.
 1916년 상해(上海)로 망명, 신규식(申圭植)이 조직 운영하던 동계서(同濟社)에 가입하여 독립운동 전선에 뛰어들었으며, 1917년 만주(滿洲) 안동현(安東縣)에서 망명자의 길 안내역을 맡아 활동했고, 영국상선(이동양행 소속) 인동지사장 조지 쇼우와 친교를 맺었다고 한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수립을 위한 한인거류민단의 국민대표 준비위원이 되어 김규식(金奎植)·이시영(李始榮)과 함께 임정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에 분주하였다. 1919년 4월 13일 일정이 수립·선보되자 1919년 4월 22일 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 의원으로 선출되고 외무부(外務部) 위원이 되었다. 또한 동년 7월 1일 대한적십자회(大韓赤十字會)가 상해에서 창립되자 상의원에 선출되었으며, 11월 9일 의열단(義烈團)이 만주(滿洲) 길림(吉林) 파오문(巴圖門)에서 창립되자 후원처(후장)가 되고 기일부·설봉부도 구분하여 운영되는 조직의 기일부 요직을 맡아 활약하였다.

장 건 상(張建相) 1882. 12. 19~1974. 5. 14 號: 蔚海 이명: 健相·明相



부산(釜山)사람이다.
 1916년 상해(上海)로 망명, 신규식(申圭植)이 조직 운영하던 동계서(同濟社)에 가입하여 독립운동 전선에 뛰어들었으며, 1917년 만주(滿洲) 안동현(安東縣)에서 망명자의 길 안내역을 맡아 활동했고, 영국상선(이동양행 소속) 인동지사장 조지 쇼우와 친교를 맺었다고 한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수립을 위한 한인거류민단의 국민대표 준비위원이 되어 김규식(金奎植)·이시영(李始榮)과 함께 임정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에 분주하였다. 1919년 4월 13일 일정이 수립·선보되자 1919년 4월 22일 대한민국 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 의원으로 선출되고 외무부(外務部) 위원이 되었다. 또한 동년 7월 1일 대한적십자회(大韓赤十字會)가 상해에서 창립되자 상의원에 선출되었으며, 11월 9일 의열단(義烈團)이 만주(滿洲) 길림(吉林) 파오문(巴圖門)에서 창립되자 후원처(후장)가 되고 기일부·설봉부도 구분하여 운영되는 조직의 기일부 요직을 맡아 활약하였다.

(좌) 공훈전자사료관 제공 공훈록

(우) 간행 공훈록(제8권)

③개별 공훈록에는 국가로부터 서훈받은 독립유공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주요 공적 및 활동이 기록되어 있다. 위의 그림(우)과 같이 수록된 개별 공훈록은 기본적으로 사진과 함께 표제인명, 생몰연대, 호(號)·자(字)·이명(異名) 등을 전치란에 기록하고, 본문에 공적을 연대순으로 서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때 본문의 내용은 공적조서를 토대로 독립운동 기간의 활동과 서훈사실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7) 공적근거 외의 내용이나 전(全) 생애에 대한 서술은 피하고 공적심사 시점 이전까지 확인된 내용으로 집필되었다. 현재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에서 제공되는 공훈록도 이와 동일하게 발간 시점의 공훈록 내용을 기준으로 게재되어 있다.

독립운동계열별로 편성된 1권~8권까지의 ③개별 공훈록은 일반적으로 해당 부문 운동계열의 서훈자 전체를 성명순으로 수록하고 있다. 다

7) 공훈전자사료관에는 독립유공자 공훈록과 함께 공적조서도 서비스 되고 있으며, 이 역시 성명과 본적으로 검색·분류가 가능하다.

만 특별히 3.1 독립운동편의 경우 지역별로 분류하였으며 임시정부와 광복군편도 임시정부/중국지역 활동 유공자와 미주지역/광복군 활동 유공자를 분류하여 수록하고 있다.

공훈록 수록시 운동계열이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계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주요활동 내용이 속하는 계열에 수록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이라도 일반적인 단체 활동의 경우 국내독립운동편에 수록되었고 국내 무장활동의 경우 독립군편에 수록되었다. 그리고 국외 활동 중에서도 만주·노령지역의 활동은 독립군편, 중국 및 미주방면의 활동은 임시정부편, 일본방면에서 이루어진 활동들에 대해서는 사회운동을 포함한 국내운동편, 문화운동편, 학생운동편에 추가되는 형태로 수록되었다.

한편, 분책계획이 수정되면서 간행된 8권은 의열투쟁편과 1986~89년 사이의 추가 서훈자편을 함께 추록하였는데, 이후 간행된 공훈록들은 연도별 추가 서훈자를 성명순으로 수록하고 있다. 권호별 추록자의 서훈연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 권호별 추가 수록자 서훈연도

권호별 추가 수록자 서훈연도	
제8권-1986~1989년	제16권-2004~2005년
제9권-1990~1991년	제17권-2006~2007년
제10권-1992년	제18권-2008~2009년
제11권-1993~1994년	제19권-2010년
제12권-1995년(1)	제20권-2011년
제13권-1995년(2)	제21권-2012~2013년
제14권-1996~2000년	제22권-2014~2015년
제15권-2001~2003년	제23권-2016년

공훈록 작성에 인용·활용된 자료는 독립운동이 이루어지던 당시의

신문·문헌·수기·일제의 보고문서 및 행형기록 등의 원전자료가 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원전자료는 개별 공훈록에 참고문헌 형식으로 부기되었으며, ②의 참여자 명단에도 해당 인물의 독립운동 활동을 확인한 자료를 약어로 표기하였다. 공훈록 작성에 인용된 자료와 그 변동사항은 아래 <표 3>과 같다.

1~16권까지는 권두의 ‘일러두기’에도 인용된 원전자료의 전체목록을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2006년 공훈록을 수록한 17권부터는 더 이상 권두에 인용자료를 표기하지 않고 개별 공훈록에 참고문헌 형태로 부기하고 있다. 이는 광복 60주년인 2005년 ‘전문사료발굴·분석단’을 운영함으로써, 정해진 인용자료 뿐만 아니라 더욱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면서 공훈록을 작성하기 시작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표 3> 공훈록의 인용 자료

권호	인용 자료 및 변동사항
권 1, 2	『독립운동사』 1-10(보훈처), 『독립운동사자료집』 1-17(보훈처), 『조선민족운동연감』(동문사), 『고등경찰요사』(경북경찰부), 『한국독립운동사』(국사편찬위원회), 『소화특고탄압사』(明石博隆), 『벽옹김창숙일대기』, 『무장독립운동비사』(공보처), 『매천야록』(국사편찬위원회), 『해학유서』(국사편찬위원회), 『기려수필』(국사편찬위원회), 『임시정부의정부문서』(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3.1편)(국회도서관), 『조선독립운동사』(문일민), 『명치백년사총서』(1, 2, 3, 1분책)(김정명),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친일문학론』(임종국), 『일제침략과 친일파』(임종국), 판결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참고문헌 - 『한국독립사』 상, 하(김승학), 『민족독립투쟁사사료』(민족운동연구소)
권 3	『박은식전서』, 『동아일보』 추가
권 4	『국외용외조선인명부』(총독부경무국), 『김구동정에 관한 건』(총독부경무국)*, 『조선일보』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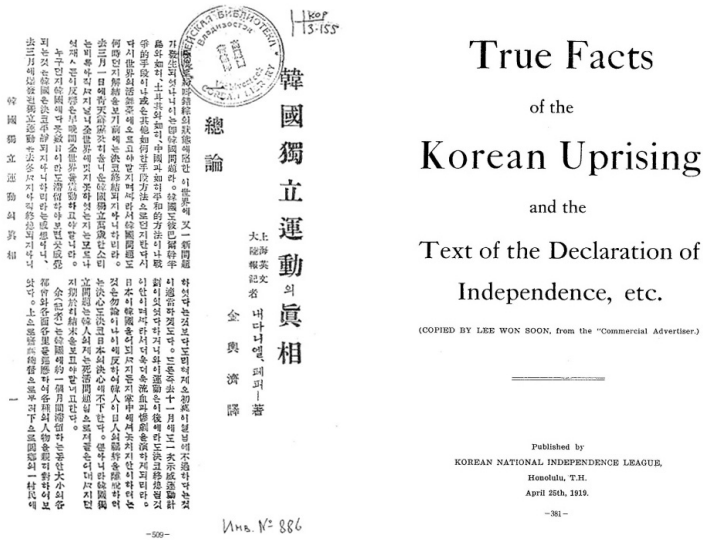
권 6	『자료한국독립운동사』(추헌수), 『조선통치사료』(한국사료연구소) 추가
권 12	『현대사자료』(강덕상), 『사상정세시찰보고서』(사회문제자료연구회), 『사상월보』(고등법원검사국사상부), 『사상휘보』(고등법원검사국사상부), 『해외의 한국독립운동사료』(국가보훈처), 『한국독립운동사자료총서』(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소화사상법제사자료』(輿平康弘), 『해조선문』, 『권업신문』, 『신한민보』, 『독립신문』(상해판), 『대동공보』, 『대한인정교보』 추가
권 16	『일제하 사회주의운동사』(한길사), 『일제하 사회운동사자료총서』(한국역사연구회), 『조선독립운동』(김정명), 『폭도에 대한 편책』, 『한국공산주의운동사』(이기하), 『한국공산주의운동사』(김준엽·김창순),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창작과비평사), 『한국독립운동사사전』(독립기념관), 『신분장지문원지』, 『범죄인명부』, 『형사사건부』, 『수형인명부』, 『조선중앙일보』, 『매일신보』, 『시대일보』 추가
권 17 이후	다양한 자료 활용, 개별 공훈록에 참고문헌 형식으로 표기

* 해당 권호에서만 인용

그리고 ④독립운동 관련 문헌자료의 경우 특정 권호(제10권, 제11권)에만 편성되어 있으며, 해당 부분에서는 자료의 소개와 함께 자료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이때 자료는 현대식 한글맞춤법으로 바꿔 수록한 자료와 원문 영인자료를 함께 수록하였다. 1992년 서훈대상자를 수록한 제10권에는 『한국독립운동의 진상(The Truth about Korea)』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대륙보(The China Press)』의 기자 내다니엘 페퍼(Nathaniel Peffer)가 3.1독립운동 직후 한국에 파견되어 1개월간 체재하며 작성한 기록이다. 이를 김여제(金興濟)가 번역하여 16회에 걸쳐 『독립신문』(35호[1920.1.8.]~55호[1920.3.18.])에 게재하였고 곧 이어 독립신문총서로서 단행본을 발행했는데, 그 중 러시아의 공립도서관에 납본된 것을 국가보훈처 해외사료모집반이 공훈록 간행 직전연도(1992년)에 입수하여 함께 수록하였다.⁸⁾ 제11권 또한 마찬가지로 국가보훈

처 해외사료수집반이 공훈록 간행이전에 존스홉킨스 대학 도서관에서 수집한 『한국 소요의 진상과 독립선언서(True of the Korean Uprising and the Text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etc.)』를 수록하였다. 영문으로 작성된 해당 자료는 원저자를 명확히 알 수 없으나 미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한 박용만의 비서 이원순이 대조선독립단의 명의로 발행한 소책자이다. 이 자료는 한국인이 일제에 항거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한편 무오독립선언서와 2.8독립 선언서를 비롯한 독립선언문들도 수록하고 있는데, 공훈록에는 번역문과 함께 원문 소책자의 영인본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9)

<그림 2>



(좌) 『한국독립운동의 진상』 영인본 일부 (공훈록 권10, 509쪽)

(우) 『한국 소요의 진상과 독립선언서』 영인본 일부 (공훈록 권11, 381쪽)

8) 『독립유공자 공훈록(10)』, 국가보훈처, 1993, 414쪽.
 9) 『독립유공자 공훈록(11)』, 국가보훈처, 1994, 331쪽.

이외에 따로 편제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수의 권호에는 권두에 독립운동 관련 사진자료들을 수록하고 있다. 그 중 3.1운동편(권2, 권3)에는 사진자료들과 함께 3.1운동과 관계된 독립선언문(무오독립선언, 2.8 독립선언, 기미독립선언)을 수록하기도 하였으며,¹⁰⁾ 학생운동·문화운동편(권6)에는 문화운동 부문 서훈자의 공훈록 뒤에 조선어학회사건의 최종판결문 전문을 수록하고 있다.

Ⅲ. 부산지역 출신 독립유공자의 수록현황

2019년 1월 현재 부산지역 출신(본적 기준: 부산, 동래)의 독립유공자는 124명이며,¹¹⁾ 현재까지 간행된 23권의 공훈록에 수록된 대상은 115명이다. 이들 부산지역 출신의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독립운동 부문별, 포상시기별로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¹²⁾ 공훈록과 기존 연

10) 上편(권2)의 경우 기미독립선언문만 수록하고 있으며, 下편(권3)은 전권에 수록된 기미독립선언문을 포함하여 무오독립선언, 2.8독립선언문까지 수록하였다.

11) 2019년 1월 현재 공훈전자자료관에서 본적을 기준으로 분류할 경우 부산 71명, 동래 53명으로 총 124명의 독립유공자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배숙원’의 경우 공훈록과 공적조서에 본적이 ‘경상남도 부산 가회 장대’로 입력되어 있는데, 여기서 부산은 합천에 대한 오기인 것으로 판단되는 까닭에 합산에서 배제하였다. 한편 ‘어소운’의 경우 본적이 ‘경상남도 기타 동래’로 되어 있는 까닭에 본적을 동래로 분류할 때 확인되지 않는데, 본고에서는 동래를 본적으로 하는 인물에 포함시켰다. 이하에서 언급되는 124명에는 본적지가 부산인 70명, 본적지가 동래인 54명이 해당된다.

12) 김혜진, 『부산의 독립유공자 공훈록 분석』, 『항도부산』 33, 2017.

해당 연구에서는 ①3.1운동, ②임시정부, ③국내항일, ④해외독립운동, ⑤광복군, ⑥의열활동, ⑦애국계몽·사회주의로 분류하여 부문별 독립유공자를 분석하였으며, ①이승만~박정희~전두환정권, ②노태우~김영삼정권, ③김대중~노무현정권, ④이명박정권 이후로 구분하여 포상연도별 분석을 하였다.

한편 해당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115명의 독립유공자와 현재 공훈전자자료관의 검색 분류를 통해 공훈록을 확인 할 수 있는 115명 중에는 약간(3명)의 차이가 있다. 김혜진의 연구에서는 김재은, 신주성, 어소운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현재

구에 미포함된 9인은 각각 2017년과 2018년 서훈된 권용학, 김은혜, 도우황, 백인봉, 임국희(이상 2017년 5명), 김학준, 문복숙, 박문희, 박시연(이상 2018년 4명)으로, 이들에 대한 공훈록은 2019년 하반기에 간행될 24권에 수록예정이다.¹³⁾

전체 독립유공자 15180명(2019년 1월 기준) 중 124명이라는 수치는 기존 연구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부산지역이 차지하는 위상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124명이라는 수치 자체가 본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본인이나 유가족 등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서훈의 경우 본적이 신원확인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현재 공훈전자자료관에서 제공되는 검색기능도 성명과 함께 본적 기준으로만 검색·분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공훈록의 내용을 통해 본적지 외의 지역에서 전개한 활동을 파악할 수 있으며, 공훈전자자료관에서 제공되는 공훈록의 경우 주소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화된 자료’로서의 기능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성장배경으로서의 지역’과 ‘활동무대로서의 지역’은 공훈록에서도, 기존연구에서도 크게 고려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앞서 언급한 124명 중에도 본적지가 부산지역이지만 실제 성장과정이나 활동 등의 측면에서 부산과는 큰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 중 국외지역에서의 독립운동으로

공훈전자자료관에서 본적을 부산지역(부산, 동래)으로 설정할 경우 이들 대신 박선익, 배숙원, 이도윤이 추출된다. 김혜진의 연구에 포함된 인물 중 김재은의 경우 간행된 공훈록에는 부산출신(『독립유공자공훈록 (14)』, 국가보훈처, 2003, 124쪽)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현재 공훈전자자료관에서는 생존인물들의 본적과 생년월일을 비공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신주성은 동래지역 3.1운동에 참여했던 인물로서 동래에 거주하였으나 본적지는 마산으로 기입되어 있다.

13) 권용학, 김학준, 도우황, 문복숙, 박시연, 백인봉은 3.1운동 부문, 박문희, 임국희는 국내항일 부문, 김은혜는 미주방면 독립운동 부문에서 공훈을 인정받았다.

인물들을 제외하더라도 김봉추[전주], 김영호[익산], 김순이[통영], 박선익[울산] 등은 부산지역에서의 활동을 확인하기 어려운 인물들이다. 또한 부산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음에도 본적이 타 지역이거나 기입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위의 124명에 포함되지 않는데,¹⁴⁾ 공훈전자사료관의 공훈록을 사용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의한 서훈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발굴한 독립유공자의 수도 많아지고 있는 만큼, 본적뿐만 아니라 다른 조건을 통한 분류 또한 이루어져야 공훈록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자료로서의 의미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독립유공자 서훈과 공훈록 수록은 기본적으로 국가차원의 ‘보훈’에 목적을 두고 진행되는 작업이므로, 이를 활용하되 지역적 관점이나 독립운동가 개인의 내면 등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는 학계의 연구와 대중화 또한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¹⁵⁾ 학계의 연구동향 역시 시대정신, 역사적 환경의 변화에 조응하여 변하고 있으며, 기존의 국가사 민족사나 운동사적 관점에 대한 반성적 인식과 발전적 극복, 새로운 관점에 대한 모색들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다만 어떠한 관점에서든 인간을 주체로 하는 역사인 이상 인물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 간행이 시작된 지 30년이 지난 공훈록이 여전히 학술적으로도 의미를 지니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독립운동가 개인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나 사전류를 포함하여 공훈록을 보완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의 생산, 수정, 보완도 필요하다.

-
- 14) 부산노동조합건설협의회에서 활동한 신만중[하동], 동래 3.1만세운동에 참여했던 신주성[마산], 부산에서 노동운동을 전개한 이금복[고성]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이외에도 본적과는 별개로 부산지역에서 주로 활동한 유공자들이 다수일 것으로 여겨진다.
 - 15) 부산 경남의 지역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일제하 의열투쟁의 주 객관적 조건을 살펴보고자 한 연구(전성현, 『일제강점기 경남지역의 의열투쟁과 지역성』, 『한국 독립운동사연구』 33, 2011)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중 접근성 측면, 활용도의 측면에서 효과적이며, 일정부분 지역적 관점까지 반영된 기초자료 중 하나로 향토문화전자대전이 있으며, 부산 지역 또한 부산역사문화대전이라는 명칭으로 서비스되고 있다.¹⁶⁾ 부산 역사문화대전에는 이미 공훈록에 수록된 부산지역 출신 독립유공자의 다수가 항목(표제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 또한 공훈록과 비교하여 지역에서의 활동이나 지역사적 의미가 보다 강조되어 있다.

<표 4> 부산출신 독립유공자의 부산역사문화대전 항목화 여부

연번	성명	본적	부산역사 문화대전 항목화여부	연번	성명	본적	부산역사 문화대전 항목화여부	연번	성명	본적	부산역사 문화대전 항목화여부
1	김기삼	부산	○	43	엄병영	부산	○	85	김영찬	동래	
2	김난줄	부산	○	44	엄진영	부산	○	86	김용구	동래	○
3	김달수	부산	○	45	오재영	부산	○(오택)	87	김윤희	동래	○
4	김병태	부산	○	46	유진석	부산		88	김인호	동래	○
5	김봉추	부산	○	47	윤경봉	부산	○	89	김학준	동래	
6	김순이	부산	○	48	윤삼동	부산		90	노원필	동래	
7	김애련	부산	○	49	이갑이	부산	○	91	도우황	동래	
8	김영규	부산	○	50	이강희	부산	○	92	문복숙	동래	
9	김영서	부산	○	51	이광우	부산		93	문시환	동래	○
10	김영주	부산	○	52	이몽석	부산		94	문인갑	동래	○
11	김영호	부산		53	이상덕	부산	○	95	박문희	동래	○
12	김은해	부산		54	임국희	부산		96	박성봉	동래	
13	김인주	부산	○	55	임봉래	부산	○	97	박세용	동래	
14	김진옥	부산		56	장건상	부산	○	98	박영준	동래	○
15	김태엽	부산	○	57	전병희	부산		99	박영환	동래	○
16	김한경	부산		58	전창호	부산		100	백인봉	동래	
17	김한기	부산	○	59	정오연	부산		101	신두성	동래	○
18	김환성	부산		60	정인찬	부산	○	102	신종은	동래	
19	박두천	부산		61	차병곤	부산	○	103	안화중	동래	
20	박선익	부산		62	최복순	부산		104	어소운	동래	
21	박성해	부산		63	최익수	부산	○	105	오규환	동래	○
22	박세현	부산	○	64	최장학	부산	○	106	오기원	동래	○

16) 부산역사문화대전, <http://busan.grandculture.net>(검색일: 2018. 2. 18.).

23	박시연	부산	○	65	최진학	부산		107	윤상은	동래	(동명이인)
24	박연이	부산		66	최천택	부산	○	108	윤장수	동래	○
25	박영출	부산	○	67	한하연	부산		109	윤정은	동래	○
26	박재혁	부산	○	68	한형석	부산	○	110	이관수	동래	○
27	박정국	부산	○	69	한홍교	부산	○	111	이도운	동래	
28	박정수	부산	○	70	허영조	부산		112	이동화	동래	
29	박정오	부산		71	강무홍	동래		113	이봉우	동래	○
30	박진태	부산		72	강석이	동래		114	이수열	동래	○
31	박차정	부산	○	73	구수암	동래	○	115	임명조	동래	
32	백광흠	부산	○	74	권용학	동래		116	정성언	동래	○
33	백신영	부산	○	75	권철암	동래	○	117	정호종	동래	○
34	서영석	부산	○	76	김갑	동래	○	118	최기복	동래	○
35	서영해	부산		77	김기룡	동래		119	최상림	동래	
36	송윤화	부산		78	김규원	동래	○	120	최창용	동래	
37	신정호	부산	○	79	김규직	동래	○	121	추규영	동래	○
38	심순의	부산	○	80	김덕원	동래		122	한덕술	동래	○
39	안정석	부산		81	김도엽	동래	○	123	허치옥	동래	○
40	양수근	부산	○	82	김반수	동래	○	124	허희중	동래	
41	양정욱	부산	○	83	김법린	동래	○				
42	양태용	부산	○	84	김성조	동래	○				

위의 표는 2019년 1월 현재 부산역사문화대전에 수록된 부산지역 출신의 독립유공자의 현황이다. 표제어로 항목화된 인물은 공훈록 수록 124명 중 74명으로 약 60% 정도이다. 항목화되지 못한 인물들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서훈된 인물이 많으며,¹⁷⁾ 공적조서 외에는 다른 자료가 부족한 인물들이 다수이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한편 지역차원에서 자료의 발굴과 수집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편, 기존에 간행된 공훈록의 수록 내용 중에서도 현재 제공되고 있

17) 부산역사문화대전의 경우 2010년~2014년까지의 기초조사 항목선정 집필을 거쳐 2015년 7월부터 공개 제공되었다. 항목화되지 못한 50명 중 2010년 이후에 간행된 공훈록에 수록된 인물이 23명으로 거의 절반에 가깝다.

는 공훈록의 한계를 일정부분 보완하며, 나름의 활용도를 찾을 수 있는 자료가 있다. 각 독립운동 부문별로 작성된 참여자명단이다. 이는 공훈록 간행을 위해 만들어진 2차 자료로서, 그 저본이 공훈록의 간행 초기에 인용한 한정된 자료들이기는 하지만 제한된 자료 속에서 각 부문 독립운동의 관련자를 망라하여 추출한 명단이다. 이 참여자 명단에는 약 4만여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출생지(본적) 뿐만 아니라 활동지역을 기록해두고 있어 운동 부문별로 해당 지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부산 출신이지만 공훈록에는 수록되지 않은 인물들과 부산 출신은 아니지만 부산에서 활동한 인물들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비록 그간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지 못한 오래된 인용자료에서 추출된 명단이지만 단순 사실관계나 인적·단체적 연관관계의 확인에는 여전히 활용될 수 있는 논저들이므로, 색인기능만으로도 2차 자료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참여자 명단 또한 단순히 특정 부문, 특정 시기에만 활동했던 인물들까지 전부 포함하고 있다는 점, 오류나 오기가 많이 있다는 점에서는 뚜렷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자료로 활용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IV. 맺음말

공훈록은 일제하 독립운동과 관련된 인물들의 기초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빠르고 편리한 자료 중 하나이다. 정해진 절차에 따른 공적심사를 거쳐 서훈이 이루어진 유공자의 공훈록은 공적내용에 대한 정확성도 보장되며, 공훈록의 집필진이 독립운동 부문 전공자라는 점 또한 자료로서의 공신력을 제공한다. 다만 공훈록의 공적내용은 공적심사를 받았던 당시 시점의 공적조서를 토대로 하며, 그러한 까닭에 공적심사로부터

오랜 기간이 흐른 경우 이후의 연구성과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서훈이 이루어진 연도나 공훈록의 간행연도 또한 자료활용에 있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독립운동과 관련된 공적중심의 사료로서 해당 인물의 전생애를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 역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독립운동 외의 측면은 공훈록에서 확인 할 수 없으며, 공훈록 수록 인물의 다각적·다층적인 면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자료의 확인이 필수적이다. 이는 자료의 생산처가 국가보훈처라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자료 생산의 목적성이 ‘보훈’에 있다는 점과도 연결된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와 연구의 지속적인 생산도 하나의 과제가 될 것이다.

한편 현재의 공훈록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측면도 있다. 공훈전자사료관을 통해 온라인을 제공되고 있으면서도 접근성 측면 외의 온라인의 장점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식적인 편찬·간행을 거친 공훈록을 정본으로 하기 때문이며, 공훈록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생산된 공적 문서라는 점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 다만 최근의 연구성과나 자료발굴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은 분명 필요하며, 특히 공훈전자사료관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현재성·즉시성과 같은 온라인의 장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색·분류기능에 제약이 있는 점도 아쉬운 측면이자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기존 공훈록에 수록된 자료 중 각 계열별 독립운동 참여자 명단의 경우 나름의 활용가치가 있으며, 이를 적극적인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자료의 작성연대가 오래되었다는 한계는 있으나 수록된 인물의 활동을 확인하고, 검토할 자료를 안내하는 색인으로서의 기능은 여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자료로서 지닌 성격과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활용한다면 공훈록은

여전히 기초자료, 참고자료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올해, 다시 3.1운동을 기억하고 여러 독립운동가들을 재조명하면서 더 많은 독립유공자들과 공훈록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기존 독립유공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가짜 공적이나 친일 행적을 재검토하고 아직 서훈되지 못한 독립운동 관련 수형인에 대한 포상을 진행한다는 국가보훈처의 계획은 철저한 검토와 조사가 전제된다는 조건에서 이를 현실화하는 작업의 하나가 될 것이다. 때맞춰 전개되고 있는 남북한 사이의 평화적 관계형성 분위기와 함께 제국주의의 압제대신 자주적인 평화를 바랐던 독립운동가들의 열망을 추체험 해보며, 앞으로 더욱 충실한 공훈록의 발간과 이를 활용한 부산 지역 민족해방운동 및 독립운동가에 대한 연구의 증진이 이루어지길 기원한다.